



4면

'제1회 J-디지털 취·창업 페스티벌' 개최

# 전주매일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음 4월 6일)

제327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4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과 카자흐스탄 누르술크 날리베예프 크질오르다주 주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국제교류센터와 크질오르다주 농업토지국의 농식품, 고려인, 문화 등 제반 분야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도,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서 국가예산 핵심사업 지원 건의

### 예산실장 주재... 임상규 행정부지사, "농생명산업 육성 미래 첨단산업 선점·새만금 투자 활성화 등 위해 꼭 필요"

전북도가 24일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 2023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국가예산 주요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관영 예산실장을 비롯해 총괄·사회·경제 예산심의관 등 담당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별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도는 대통령 직속 공약인 농생명산업 육성과 미래 첨단산업 선점, 새만금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예산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과 연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주기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함께 내년도 예산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친환경·초고속 교통수단인 하이퍼루브 핵심기술의 선제적 개발 및 검증용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이퍼루브 기술개발 사업'의 조속한 R&D 예타 통과와 연구개발비로 국비 170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새만금 농생명융합지구를 활용해 세계 최대의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전·후방 산업 집적을 통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완성을 위해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사업의 국비 지원 건의와 함께, 분지형 고품질로 특색 있는 자연·생태자

원을 보유하고 있는 진안 신평제(도유립)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 세계 신평제농산물 단지를 조성하는 '지역권 친환경 신평제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사전 타당성 용역비 50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2026년 개항하는 5만톤급 부두에 적합한 수심(-14m) 확보를 위해 부두장 조성 시 급류를 강조하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한 '새만금신항 1단계 총사업비 조정' 건의와 새만금 국제교역의 핵심 기반 시설로 대한민국의 미래 신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해 2030년까지 투자계획인 1단계 배후부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건의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북 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새로운 전북을 향한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며,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출범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북도 건의사업이 내년에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관영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논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기재부는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자 예산실장 주재로 지난 17일부터 전국 광역지자체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카자흐 지방정부들과 교류 '활발'

### 알마티 주지사 일행에 이어 크질오르다 주지사 일행도 전북 방문 김관영 도지사과 고려인·농업 등 공통 관심 분야 교류 의사 교환

전북도와 한국의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꼽히는 카자흐스탄 지방정부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24일 크질오르다주 누르술크 날리베예프 주지사가 의회, 기업인 등 10명의 대표단과 함께 김관영 전북도지사을 예방하는 등 전북도를 공식 방문했다.

지난 4일 마랏 일로시조비치 알마티 주지사 일행이 전북을 방문해 교류의 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2번째 대표단 방문이다.

한국인들에게 독립운동가 흥병도 장군이 생을 마친 곳으로 잘 알려져 있고 현재도 '흥병도 거리', '계봉우 거리'가 지정되어 있는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는 1937년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의 첫 정착지이며, 특히 2021년 8월 흥병도 잠군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되면서 우리나라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가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김관영 도지사와 누르술크 날리베예프 크질오르다 주지사는 이날 집견 자리에서 두 나라 간 역사적 인연에 대해 언급하며 고려인, 농업 등 공통관심

분야에 대해 교류 의사를 교환했다.

크질오르다 지역은 고려인들이 강제이주 당시 간직해 온 볍씨로 땅을 일궈, 카자흐스탄 최대 쌀 생산지(98.1% 생산)이자 쌀 수출국으로 만들어 낸 지역이어서 전북도와 농업분야 교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날리베예프 주지사는 김 지사와의 간담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농도이자 최첨단 기술로 농생명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전북을 오래전부터 방문해 보고 싶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고려인들이 첫 발을 내딛었던 역사를 새기며, 더 깊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며, "농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에 날리베예프 주지사는 "전라북도라는 한국의 역사와 아름다운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상이 깊다"며, "농업, 문화, 기업 등 고려인이 가교가 되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교류를 모색해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전북도 국제교류센터(센터장 김대식)와 크질오르다주 농업국(국장 듀체비예프)은 농식품, 고려인, 문화 등 제반 분야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해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양성과 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날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2공구에서 새만금 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준공식이 열렸다. (관련사진 3면)

이날 준공식에는 새만금개발청장, 전북도 경제부지사, 군산시 부시장,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전북대학교 교학부총장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전문인력양성센터의 준공을 축하하고

##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기업 기술개발 지원

### 새만금 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준공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집적 효과 등 기대

새로운 출발과 성공적 운영을 응원했다.

새만금 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은 새만금개발청, 전북

도가 시가 지난 2020년부터 국비 65억, 도비 35억, 시비 15억 총 115억원을 들여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과 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왔다.

특히, 전문인력양성센터는 준공 전부터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대학교와 사업 운영 협약을 체결해 전북대학교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센터에서 임시적으로 꾸준히 교육 및 기술개발 지원을 해왔으며, 2021년부터

1,045명의 교육 수료 및 182건의 기술개발지원 성과를 내고 있다.

센터가 준공됨으로써 양질의 실습 및 기술 성숙을 시험할 수 있고 새만금 한 곳에서 에너지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집적 효과와 새만금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만금 내 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대규모 투자 흐름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인력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양성센터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미정 부시장은 "전문인력양성센터가 에너지 기업 현장에 맞춤형 수요 대응형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협력하면 좋겠다"라며 "새만금의 에너지산업이 지역 경제를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 4번 라면 1번 공짜!

# 익산 다이로움 택시

지금 바로 어플을 다운 받으세요!

다이로움 택시 포인트 적립률이 2%에서 5%로 통 크게 증가!  
호출료 무료! 이용 수수료 무료! 자동결제 시 포인트 적립! 익산 다이로움 캐시백 혜택까지!